지역 메아리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 공모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5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6만여 명이 이용하는 고창실내체육관은 건립한 지 30년 된 공공체육 시설로 그동안 1차례 개보수를 추진했으나, 지붕누수 등 시설노후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군 재정 형편상 미뤄졌던 개보수 사업을 이번 공모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새로 단장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과 체력증진,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이 사랑하는 생활체육공간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과 개보수사업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안심하고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드림스타트, 아동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가 이달부터 아동들의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들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적 자극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나 언어 발달이 더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으로 인한 아동들의 발달상의 차별을 예방하고 성장기에 맞는 인지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상 조건은 ▲유아·학령기 아동 ▲또래 아동과 비교해 언어가 늦은 아동 ▲또래 아동과 비교해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이다.

프로그램에는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드림스타트는 이달(9일)부터 9월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강사(3~4명)가 교재와 교구를 이용해 주 1회 가정이나 학교, 어린이집을 방문해 1:1방식으로 진행한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방문 수업을 통해 아동들의 인지와 언어 발달 기관을 자극, 관련 능력을 높이고 특히 전문가들의 방문을 계기로 부모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정읍시 '새암길 주차 환경 개선사업' 선정, 국비 11억 2800만원 확보

정읍시의 새암길 상점가와 샘고을시장 관련 사업이 잇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일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새암길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하 새암길 개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또 정읍의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이 '2018년 희망사업 프로젝트 후보시장'에도 선정됐다.

먼저, 새암길 개선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1억2,800만원이 확보됐다.

시는 여기에 시비 7억5,200만원을 더한 모두 18억8,000만원(국비 60%, 시비 40%)을 들여 세무서 앞(수성동 575-8번지) 일원에 주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경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새암길 상점가 고객뿐만 아니라 쌍화차거리와 양자강을 비롯한 정읍명소를 방문하는 나들이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북도내 4개 신청 시·군 중 정읍이 선정됐다."며 "주차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이들이 상가를 찾게 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희망사업 후보시장에 선정된 샘고을시장 활성화와 문화관광 특화형 전통시장 기반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서면과 고객, 현장평가를 거쳐 후보시장으로 선정됐다."며 "공단 매칭 PM(Project manager)과 시장 상인 기획단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평가 후 6월초 지원 시장으로 확정 된다."며 최종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은 2년간 국비 포함 10억원을 투입해 문화 콘텐츠와 특화상품 개발, 지역사회 협업, 청년상인 육성 등의 시장 특화 요소와 강점의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정읍의 '쌍화차거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비 5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들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일대를 친 고객형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오복마실축제

세계 최고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출격

5월 6일 12시 30분 부안읍 행사장 일원 축하 에어쇼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서 세계 최고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둘째 날인 오는 5월 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여 분 간 부안읍 축제 장 일원에서 축하 에어쇼를 펼친다.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 세계 최고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출격한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둘째 날인 오는 5월 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여 분 간 부안읍 축제 장 일원에서 축하 에어쇼를 펼친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B 8대의 편대로 구성된 특수비행팀으로 역동적이고 스릴 있는 기동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5월 1일 사전비행을 2차례 실시하고 5월 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여 분 간 부안읍 축제 장 상공을 돌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23분 가량 전체 기동(Full Display) 공연을 펼치고 5분여 가량 저고도 축하비행인 분열비행(Fly-By)을 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에어쇼를 할 예정인 만큼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오는 5월 1일 사전비행과 6일 축하 에어쇼 당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오복과 마실 등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을 주제로 열리는 거리형 축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안읍 일원에서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며 2017년 전북도 최우수 축제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창복분자 '선연'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이 '2018 코리아 탑브랜드 대상' 특산품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면서 다시한번 그 명성을 알렸다.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은 (사)한국언론인협회, 서비스마케팅학회가 주최했다.

이 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 중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객감동, 글로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의 분야로 나눠 전문가 분석과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고창 복분자 '선연'은 '선운산의 자연'의 준말로, 고창군에서 생산된 복분자와 복분자 가공품에 대해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다.

고창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와 서해안 해풍을 맞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도, 유효성분, 향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포도보다 4배, 블루베리보다 2.7배가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방지, 육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자연 속에서 농가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복분자 '선연'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천규 정읍시장 예비후보, "내장산 생태월드 조성"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천규 예비후보가 지역의 오래된 난제 '내장산 사계절관광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11일 우천규 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장산 사계절관광 활성화 의 해법으로 7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내장산 생태월드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시립박물관 사이 주차장과 캠핑장 등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내장산 주변 핵심 위치의 시설들이 관광활성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일대에 사계절 꽃광장을 비롯해 내장산 자생식물과 기후별 식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버섯테마관, 곤충관, 어종별 세미아쿠아리움, 놀이시설, 중대형 자생찻집, 정읍대표음식관 등의 콘텐츠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음해세력 법적 책임 치러야"

이학수(57) 정읍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1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 흠집내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7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학수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두드러지게 유포되고 있는 것은 각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1위에 올라있는 후보를 시기하는 음해세력의 저급한 선거전이라며,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전이 공명정대한 선거축제로 치러지지 못하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음해세력과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승리와 지역정치발전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린·정책선거를 천명하고 모든 후보들의 동참을 제안했었다.

/정읍=김대환기자